

전문용어 생성 원칙의 번역학적 적용 — 세계유산 개념 ‘serial properties’의 번역 용어 생성을 중심으로 —

박 현 주
(부산대)

1. 들어가며

“전문 용어는 번역의 결과이며, 따라서 번역학의 연구 대상이 된다”(김성원 과 김정우 2011: 34). 그러나 국내 번역학계에서 전문용어의 번역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으며 그마저도 통번역사의 용어 습득 측면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왔다. 전문용어의 생산자라기보다는 사용자로서 통번역사의 모습이 더 강조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 및 기계번역을 위시한 기술 발달은 용어 ‘생성’ 단계에서 번역자의 역할이 더 커질 것임을 예견케 한다. 이미 정착되어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경우, 코퍼스나 데이터베이스 등 일종의 ‘저장소’에서 자동으로 추출하는 것이 가능한 기술적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더 이상 통번역사가 인지적 노력을 들여 용어 쌍을 암기하거나 습득할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외래 용어가 처음 도입되는 경우는 기존에 축적된 용례가 없으므로 TL(target language) 용어를 생성할 필요가 대두되고 번역자가 창의력을 발휘해 여러 대역어 후보를 산출하고 그 중 가장 적절한 용어를 선택해야 한다. 기계번역의 발전으로 텍스트 번역에서는 프리에디팅(pre-editing) 내지 포스트에디팅(post-editing) 단계가 중요해지듯, 용어 번역에서는 일종의 새로운 용례를 만들어 내는 용어 생성 단계에 이제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물론 전문용어 번역, 특히 신조어 생성은 주로 분야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전문 번역사에게 개입의 여지가 있겠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혁신 기술의 확산을 위해서는 관련 문서의 번역이 동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과정에서 외래 용어를 처음 소개하게 되는 번역사는 TL 신조어를 생성해 내야 한다. 임시적으로나마 용어전문가(ad hoc terminologist)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Cabre 2010: 363). 이러한 역할을 인지해 유럽이나 캐나다의 경우 통번역사 교육 과정에 전문용어학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박현주 2016: 280-282).

김성원과 김정우(2011)는 번역학 연구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대역어 선정에 이르는 과정 및 그와 관련한 번역 기법임을 지적하며 전문용어 번역과 관련된 논의를 이끌어 가고 있지만 스스로 연구 한계로 지적하고 있듯 “처방론적” 전략, 즉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전략은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적어도 새로운 용어를 번역해 신조어를 생성함에 있어서는 ISO 704 등에서 제시한 전문용어 생성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즉 전문용어학적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UNESCO World Heritage) 관련 개념을 예시로 하여 전문용어학적 접근법을 어떻게 번역학에 도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차후 논의에서 볼 수 있듯 세계유산은 나름의 개념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세계유산협약국의 논의를 통해 관련 개념이 정립되어 유네스코 공식 언어인 영어 내지 불어로 용어가 만들어지고 이는 다시 각국 언어로 번역되므로(본고 4장 참조) 외래 용어의 번역 및 도입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기존에 전문용어와 관련된 번역학 논의는 거의 의학, 과학, 기술 등의 분야에 국한되어 왔으므로 논의를 문화, 특히 문화재 분야로 확장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본고는 본론에 앞서 전문용어 번역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핀 후 국제전문용어정보센터(Infoterm: International Information Centre for Terminology), 캐나다 번역국(Terminology and Standardization Translation Bureau,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하 'ISO') 등에서 제시한 전문용어 생성 관련 원칙을 개괄하고 번역 과정에서의 적용을 목표로 이들 원칙의 통합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후 4장에서는 세계유산 관련 개념의 국내 번역 현황을 고찰하고 5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serial property'¹⁾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한다. 동 개념은 현재 '연속(連續)유산'이라는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이 TL 명칭(designation)²⁾만으로는 어떤 개념을 나타내는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ISO 704의 '투명성 원칙' 위배) '연속'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오해의 소지도 있다(본고 4.2.2 참조). 따라서 이 개념이 번역을 거쳐 새로 도입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전문용어학적 접근 방식을 접목해 보다 정확한 TL 용어를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격적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고는 기존에 확립되어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 즉 기표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지 못한 용어의 사용으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 향후 전문용어 번역 시 번역가들이 고려 및 실질적으로 적용해볼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밝혀 둔다.

-
- 1) 박소현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집행위원의 표현을 빌리자면 “연관성을 명료하게 정의할 수 있는 두 개 이상의 구성요소가 포함된 유산”을 의미한다(연합뉴스 2013/7/3 기사 ‘변화하는 세계유산 개념에 창의적 대응해야’).
 - 2) 일련의 특성(characteristics)으로 구성된 개념(concept)은 명칭(designation)으로 표상되는데 명칭은 용어(term), 호칭(appellation) 혹은 기호(symbol)로 분류할 수 있다(ISO 704:2009). ‘designation’을 ‘지칭’으로 번역하는 사례(예: 정연진 2013)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전문용어학자인 이현주(2015)의 번역을 따라 ‘명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전문용어의 번역

전문용어의 번역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2000년대 들어 간헐적으로 진행되고는 있으나(김성원과 김정우 2011; 김정우 2000, 2003; 박현주 2016; 방교영 2000; 이현주 외 2007; 임현경 2015; 정연진 2013 등) 번역학의 다른 주제에 비해서는 비교적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방교영(2000)은 통번역사의 효율적인 용어 습득을 목적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러시아어 전문용어 유형을 분석하고 있다. 조어 재료에 따라 번역한 경우, 음차한 경우, 번역과 음차가 결합한 경우, 외국어를 사용한 경우(영어+번역어 혹은 영어+음차), 네 가지로 크게 분류한다. 동 연구가 진행됐던 20년 전만 해도 특정 전문 분야의 용어를 얼마나 잘 습득하고 있느냐가 통번역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그에 따라 전문용어 교육도 습득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AI시대의 도래로 이제 통번역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용어 능력에 관점의 전환이 필요해 보이며 바로 이 지점이 본고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국내 번역학자 중 전문용어와 관련해 가장 활발한 연구를 한 학자로는 김정우를 들 수 있다. 김정우는 먼저 언어학 슬어의 번역 문제(2000)와 자연과학 텍스트 중에서도 정신과학 분야 용어의 번역 문제(2003)를 고찰했다. 두 연구 모두 연구의 주요한 두 축인 전문용어와 번역 중 번역에만 초점을 맞추고 전문용어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후 연구(김성원과 김정우 2011)에서는 의학 분야 전문용어를 중심으로 번역의 유형과 방법론을 탐구했다. 전문용어의 번역은 단어 내지 구 차원에서 이루어지므로 번역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 기존의 일반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언급하며 동 연구는 번역의 깊이와 폭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번역의 깊이³⁾란 SL의 형태 혹은 의미가 번역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3) 아래와 같이 세분화된다.

- 영번역: SL 형태를 그대로 가져옴(예: computer)
- 음성번역: SL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예: 컴퓨터)
- 의미번역: SL의 의미를 한글로 표기(예: 전산기)
- 혼용번역: 음성번역과 의미번역을 같이 사용(예: amino acid → 아미노산)

것인데 반해, 번역의 폭⁴⁾은 SL의 형태 혹은 구조가 변화되는 정도에 따른 구분이다.

정연진(2013)은 ISO/TC 37, 즉 ISO의 용어학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가 제정한 40가지 표준 중 실무 번역과 연관성이 가장 높은 표준 세 가지를 소개하고 이들 표준의 국내 번역 환경 적합성을 고찰하고 있다. 즉, 전문용어 관련 규범에서 사용하는 일련의 용어를 설명하고 있는 ISO 1087-1(Terminology work - Vocabulary - Part 1: Theory and application), 전문용어 생성을 위한 원칙과 방법에 관한 ISO 704(Terminology work - Principles and methods), 개념 및 용어의 조화⁵⁾에 관한 ISO 860(Terminology work - Harmonization of concepts and terms)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중 실질적 전문용어 작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ISO 704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한편 박현주(2016)는 번역학과 전문용어학의 연관성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번역 과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문용어사전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전이 어떤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제시한 후 그 구축 방안까지 모색하고 있는 동 연구에서는 세 인접 학문 분야(번역학, 전문용어학, 사전학)의 관계성을 고찰한다.

앞서 언급한 일련의 연구는 번역학 내부의 관점이 많이 반영된 것인데 반해 이현주 외(2007)는 번역학 외부에서 번역과 전문용어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이현주 외(*ibid.*)는 외래 전문용어의 번역 및 조어를 위한

4) 아래와 같은 하위 분류를 지닌다.

- 대칭 번역: SL의 형태 혹은 의미 구조가 TL에 그대로 반영(예: absolute space → 절대 공간)
- 비대칭 번역: SL의 형태 혹은 의미 구조가 변경
 - 축소번역: SL의 형태/의미가 축소(예: one-shot color camera → 원샷 카메라)
 - 확대번역: SL의 형태/의미가 확대(예: information network → 정보 처리망)

5) ISO 1087-1은 ‘개념의 조화(harmonization of concepts)’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전문적, 기술적, 과학적, 사회적, 경제적, 언어학적, 문화적 또는 기타 차이가 있는 두 개 이상의 관련 개념이나 공통점이 있는 개념 사이의 경미한 차이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들을 조화시키는 활동(번역은 정연진 2013: 150에서 발췌)

지침 마련을 위해 국내외 전문용어 조어 원칙⁶⁾을 조사 및 정리한 후, 전문용어 형성 원리에 입각한 번역 기준, 국어학적 관점에서의 전문 용어 조어 기준, 용어 조어법과 번역 유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한다. 번역 유형은 음운 차용, 문자 차용, 직역(의미 차용), 의역, 혼합번역으로 크게 분류한다. 동 연구는 또한 18개 중분야를 아우르는 우리말 전문 용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전문 용어 번역 유형을 검토했다.

3. 전문용어 생성 원칙의 번역학적 통합

이현주 외(*ibid.*)에서 제시한 지침 및 기준은 특정 분야 전체에 대한 ‘체계적(systematic)’ 전문용어 작업, 즉 해당 분야의 용어 전체를 일시에 정리 및 수립하고자 할 때 보다 적절하다. 실제 텍스트 번역 시 수행하게 되는 ‘임시(ad-hoc)’ 용어 작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간략하지만 여전히 앞서 언급한 체계적 용어 작업과 궤를 같이 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전문용어의 번역 과정을 생각해 보면 해당 SL 용어가 표상하는 개념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이를 TL 용어로 표현하는, 즉 TL 명칭을 부여하는 두 단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 후속 단계에서는 여러 가능한 TL 용어 후보 중 가장 적절한 명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가장 적절한”이라는 기준의 모호성은 일련의 전문용어 생성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현주 외(*ibid.*)에서 다룬 각종 조어 원칙에 더해 국제전문용어정보센터의 용어 요건(*term requirements*)과 캐나다 번역국(이하 ‘번역국’)의 신조어 수용 요건까지 고려한 일련의 원칙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제전문용어정보센터는 ISO와 함께 전문용어 분야의 주요 국제기구라는 점에서, 번역국 신조어 요건의 경우는 번역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서 제시한 요건이라는 점에서 추가로 고려하고자 했다.⁷⁾ 세 가지 지침 중

6) ISO 704:2000, 카이스트 한국전문용어공학센터(KORTERM)의 용어 형성 원칙, 남북 용어 통일화 사업(리수락)의 용어 형성 원칙, 한국학술단체연합회 학술 전문용어 표준화위원회 기준

7) 국제전문용어정보센터와 UNESCO의 『용어개설(Terminology Manual)』(Felber 1984)

ISO가 가장 최신이기도 하고 하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표 1> 참조) ISO가 번역국 및 국제전문용어정보센터의 모든 원칙을 포함하므로 ISO 704:2009에서 제시된 원칙을 중심으로 관련 사항을 고찰한 후, 이현주 외(2007)에서 다루어진 지침까지 통합한 TL 용어 생성 원칙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한다.

ISO 704:2009는 용어 생성 시 아래와 같은 일곱 가지 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pp. 38-41).

투명성(transparenty): 정의나 설명이 없더라도 용어만 보고 해당 개념을 부분적으로나마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 핵심 특성⁸⁾, 대개 변별적 특성(delimiting characteristic)을 용어에 포함시키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국제전문용어정보센터의 ‘정의 부합성(correspondence with the definition)’, 번역국의 ‘동기(motivation)’ 요건에 상응한다.

일관성(consistency): 특정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개념 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된 일련의 용어가 체계적 구성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합성섬유의 경우 ‘nylon’, ‘orlon’, ‘rayon’ 등 용어가 일관되게 ‘-on’으로 끝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으며 국제전문용어정보센터의 ‘용어 체계성(systems of terms)’에 상응한다.

무중의성/명확성(appropriateness): 최기선(2007)은 동 원칙을 ‘적합성’이라 번역하고 “제안된 새 용어는 그 언어 공동체 안에서 친숙하게 통용되는 패턴을 따라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설명만 보면 ‘패턴’이라는 표현 때문에 형태적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ISO 원문을 보면 “familiar, established patterns of meaning”으로 혼동의 여지가 없도록 특정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를 고수하여야 함을 뜻한다. ISO 704:2009에 제

3.77항(신조어 생성 시 고려해야 할 요소)을 참조하라. 한편 캐나다 번역국의 『전문용어학 입문(Handbook of Terminology)』(Silvia Pavel & Diane Nolet 2001)은 신조어가 효과적으로 수용 및 정착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용어의 수용성이라는 관점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신조어 형성 시 고려해야 할 원칙으로 이해해도 무방해 보인다.

8) ‘특성(characteristic)’은 ‘대상(object)’의 ‘속성(property)’을 추상화한 것이다(ISO 704:2000/2009). ‘object’를 ‘객체’로 번역할 수도 있으나 전문용어학자인 이현주(2015)의 번역을 따랐다.

시된 예를 보면 ‘install wizard’라는 용어가 ‘wizard’의 한 유형이지만 ‘to install wizard’라는 명령형으로 잘못 읽힐 수도 있기 때문에 ‘installation wizard’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혼동의 여지없이 명확해야 로컬리제이션(localization) 과정에서 오역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ISO 704:2000 역시 ‘atomic energy’와 ‘nuclear energy’를 비교하며 전자를 사용할 경우 ‘atom’에서 생성된 에너지 혹은 전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nuclear energy’라는 용어가 과학적으로 보다 적합하다고 밝히고 있다. 동 원칙은 또한 용어가 될 수 있는 한 ‘중립적’이어야 하며 특히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해서는 안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요소를 고려할 때 동 원칙은 ‘명확성’ 내지 ‘무중의성’ 원칙이라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

언어적 경제성(linguistic economy): 이 원칙은 정확성 및 투명성 원칙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해당 개념의 많은 특성을 반영할수록 용어는 보다 정확해지고 투명해지지만 형태적 길이는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 원칙이 상충할 경우에는 실용성(practicality) 측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공장에서 구어로 의사소통하는 경우라면 간략한 형태가 적절한 반면 과학 서적에서는 여러 단어로 구성된 합성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번역국의 간결성(brevity) 원칙과 동일하게 ‘electronic mail’ 대신 ‘e-mail’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생산성(derivability and compoundability): ISO 704: 2000에서는 파생어 생성 가능성(derivability)만 언급되었으나 2009년판 개정 시 합성어 생성 가능성까지 포괄하도록 표현이 수정되었다.

언어학적 정확성(linguistic correctness): 해당 언어 공동체의 언어학적 규범을 따라야 한다.

모국어 선호(preference for native language): 모국어 표현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ISO 704를 중심으로 상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현주 외(2007)에서 다루어진 일련의 규범까지 함께 고려해, 전문용어, 특히 신조어 번역 시 적용 가능한 TL 용어 생성 원칙을 제안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TL 용어 생성 원칙 통합안⁹⁾

원칙	설명	통합된 기존 원칙
(개념적) 투명성	용어가 대상의 특성 (characteristics), 특히 변별적 특성을 반영해 용어를 보고 개념을 유추할 수 있음	1. transparency 2. correspondence with the definition; accuracy 6. motivation; ease of retention
(개념 체계적) 일관성	용어가 개념 체계를 반영하여 체계성을 지니며 그에 따라 형태적으로 일관성을 지님	1. consistency 2. systems of terms; a member of a term system 3. 4. 연합관계 고려(반대 개념) - 표현도 일관되게, 일관된 특징/자질 반영
명확성/ 무중의성	중의성이 없어 지칭하는 개념을 명확히 알 수 있음	1. appropriateness (clarity) 2. avoidance of ambiguities 3. 중의적 표현의 회피; 한자 병기(표기 수단) 문제; 음상의 고려(동음이의어)
수용성	언어적 경제성을 지녀 사용 및 기억이 용이함	1. linguistic economy (practicality) 2. be concise; be easily spelt & pronounced 3. 일반 용어와 학술 용어의 조화(일상어 우선); 형태 길이의 고려 5. 기능어 삭제 6. brevity; handleability & ease of retention
생산성	파생어 내지 합성어 생성이 가능함	1. derivability & compoundability 2. forming of derivatives; allow easily the formation of derivatives 6. potential for derivation (or productivity)
규범성	외래어 표기법을 포함한 어문 규범 준수	1. linguistic correctness; preference for native language 2. be linguistically correct 3. 국어의 조어 방식 고려; 음성 번역의 일관성

주) ‘통합된 기존 원칙’ 항에서 앞의 번호는 각기 다음을 의미한다. 1. ISO 704(2009); 2. 국제전문용어정보센터(1984); 3. 김정우(2003); 4. 김정우(2000); 5. 리수락(최기선 2007 등 참조); 6. 캐나다 번역국(2001)

9) 번역할 경우 각 규범 혹은 지침 원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의도적으로 원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문 표현을 그대로 수록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불가피하게 명사형이 아닌 서술형의 형식을 띠고 있다(예: be concise).

번역국 요건 중 ‘기억의 용이성(ease of retention)’은 지칭하는 대상과 그 명칭 (designation)을 쉽게 연결 가능해야 하고 형태가 간략할수록 기억하기 편하다는 측면에서 두 항목(‘투명성’과 ‘수용성’)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았다. 국제전문용어정보센터의 ‘유의어 배제(avoidance of synonymy)’는 전문용어학의 기본 원칙인 일의성(monosemy)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의성 원칙은 뷔스터(Wüster)의 전통적 용어 이론에서는 절대적 원칙이었으나 이후 사회 인지 용어론 등에 의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이현주 2015). ‘기존 용례 준수(adherence to established usage)’ 원칙은 이미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례의 경우 이를 변경하기보다는 그대로 사용하는 편을 권장하는 것으로 용어 ‘생성’ 원칙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상기 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세계유산 관련 개념의 번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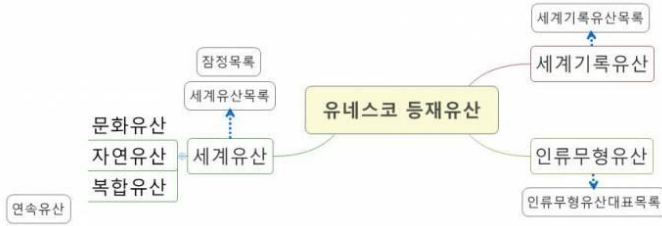
세계유산 관련 개념은 유네스코 공식 언어인 영어 및 불어로 용어가 만들어져 번역을 통해 개념이 확산된 사례로 본 장에서는 주요 개념의 국내 번역 현황을 고찰하도록 한다.

4.1 용어 번역 현황

박현주(2016)는 세계유산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그림 1>과 같이 유네스코 등재유산 개념도를 제시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지면 제약 상 동 개념도의 좌측에 언급된 세계유산 관련 개념만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¹⁰⁾

10) 이 외에도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 ‘진정성(authenticity)’, ‘완전성(integrity)’, ‘유산구역(property zone)’, ‘완충구역(buffer zone)’ 등의 개념이 주요하다. 강경환(2010: 37)은 이 중 ‘buffer zone’이 ‘완충지대’라고도 번역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문 번역어의 일관성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그림 1〉 유네스코 등재유산 개념 체계도(박현주 2016: 216)



이들 개념의 번역 현황을 김성원과 김정우(2011)의 번역 유형 분류에 따라 정리해 보면 모두 한자어로 의미번역을 하고 있으며 ‘번역의 폭’, 즉 구조적 측면에서는 전부 대칭 번역을 하고 있다(<표 2> 참조). 이는 비록 외래 개념이긴 하지만 문화재 분야 용어이다 보니 한자어가 많은 해당 분야의 용어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동일 한자 문화권인 중국과 일본에서는 이들 개념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도 같이 조사하였다. 한국어 TL은 문화재청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기준으로 하였고 일본어와 중국어 용어는 구글 검색을 통해 주로 정부 기관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온라인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다.

중국과 일본 역시 대다수 의미번역, 대칭번역을 하고 있어 번역 유형과 관련해 특기할 만한 점은 없다. ‘serial properties’의 TL 명칭만 다른 용어의 번역어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남을 볼 수 있다. 한국어와 일본어에서는 ‘연속(성이 있는)유산’, 중국어에서는 ‘계열유산’으로 되어 있다. ‘복합’과 ‘혼합’, ‘일람표’와 ‘목록’은 유의어로 볼 수 있지만 ‘연속’과 ‘계열’은 의미장이 많이 다르다.¹¹⁾ 어떤 용어가 더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5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그에 앞서 다음 절에서는 국내에서 ‘serial properties’가 ‘연속유산’이라는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되면서 SL, TL 개념 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그러한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1)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하는 ‘연속’과 ‘계열’의 관련 어휘는 다음과 같다.

연속: 지속, 계속, 연쇄, 불연속
계열: 라인, 관련, 계통

〈표 2〉 세계유산 관련 개념 한중일 번역 현황

SL	TLK(한국어)	TLC(중국어)	TLJ(일본어)
World Heritage	세계유산	世界遺産	世界遺産
cultural heritage	문화유산	文化遺産	文化遺産
natural heritage	자연유산	自然遺産	自然遺産
mixe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¹²⁾	복합유산	混合遺産 [혼합유산]	複合遺産 [복합유산]
serial properties	연속유산	系列遺産 [계열유산]	連続性のある遺産 [연속성이 있는 유산]
World Heritage List	세계유산목록	世界遺産名錄 [세계유산명록]	世界遺産一覽表 [세계유산일람표]
Tentative List	잠정목록	預備清單 [준비목록]	暫定一覽表 [잠정일람표]

주1) SL은 ‘세계유산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1972)’ 및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The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2017)’에 등장하는 표현 그대로 수록하였다.

주2) 중국어와 일본어의 경우 한국어 번역을 ‘[]’ 안에 수록하였다.

4.2 ‘serial properties’와 ‘연속유산’

‘serial properties’가 ‘연속유산’으로 번역되어 사용되며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용어가 등장하는 국내 문화재 분야 논문을 살펴보았다. 구글 스칼라(scholar.google.com)에서 “연속유산”을 키워드로 검색해 도출된 총 42건 중 문화재 분야 논문이면서 이용 가능한 25건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4.2.1 ‘연속유산’의 영문 표현(back translation)

‘연속유산’에 대한 영문 표현이 등장하는 사례를 조사한 결과, ‘serial

12) ‘mixe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의 경우 유네스코 문서 자체에서도 ‘mixed heritage’라는 약어로 많이 사용하므로 생략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cultural and natural’을 괄호 안에 넣었다. 따라서 ‘mixed heritage’를 기준으로 할 때 ‘복합유산’은 대칭 번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heritage’, ‘serial nomination’, ‘Serial/serial property/properties’, ‘Series/series heritage’ 등 다양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한 연구의 경우는 단일 문건 내에서도 <표 3>과 같이 매우 다양한 용어가 사용됨을 볼 수 있다.

<표 3> ‘연속유산’의 영문 표현이 등장하는 사례(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용례	페이지
연속유산(serial World Heritage properties)	60
연속세계유산(Serial Natural World heritage)	70
연속세계유산(serial natural World Heritage property)	71
하나의 연결된 문화유산(serial property)	73
초국적연속유산(serial transnational property)	98
연속유산(Serial nomination)	103
...a world serial heritage rather than natural heritage...	161(영문 초록)

이 중 ‘series’라는 단어가 들어간 표현의 경우 구글 검색 결과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SL 용어를 제대로 찾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연속’이라는 한국어 표현 때문에 바로 연상되는 ‘series’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series’가 ‘serial’의 명사형에 해당하므로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엄연히 ‘serial properties’라는 용어가 존재하며, ISO 704:2009 무중의성 원칙에서 보았듯(‘install wizard’ vs. ‘installation wizard’) 어형에 따라 다른 의미가 부여될 수 있으므로 ‘serial’이라는 표현을 준수해야 한다.

‘유산’ 역시 ‘heritage’와 ‘property’라는 표현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세계유산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의 영문 명칭을 보면 ‘property’가 아닌 ‘heritage’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문화재와 관련한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반영한다. Francioni(2007)에 따르면 국제법상의 ‘대세적 의무(對世的 義務, erga omnes obligations)’ 개념, 즉 국제 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 개념을 적용해 문화재를 한 국가의 소유(property, 財)로 보는 관점에서 전 인류가 보존해야 할 세계적 유산(heritage)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쪽으로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유산’이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 등 개념적 대표성을 띠는 ‘heritage’라는 단어로 표현하되 구체적인 각 유산을 의미할 경우에는 ‘property’를 써야 하는 것이다.¹³⁾ ‘연속유산’의 SL 용어가 ‘serial heritage’가 아니라 ‘serial properties’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cultural/natural/mixed heritage’ 처럼 대표성을 지니기보다는 개별 유산과 보다 밀착한 개념이기 때문에 ‘property’를 사용하되,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은 특정 ‘serial property’ 한 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properties’라는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부터는 편의상 ‘serial property’로 통일해서 표현하기로 한다.

4.2.2 ‘연속유산’의 생산성

‘연속유산’이라는 TL 용어에 대해 재고가 필요한 이유는 ‘연속’이라는 단어의 생산성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개념 상 변화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성만 놓고 보면 ISO 704 원칙에 준하므로 바람직한 용어라고 할 수 있으나 여기서 파생 혹은 합성된 표현을 면밀히 고찰해 보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연속유산’은 아래와 같은 파생/합성 표현을 보이고 있다.

- ① 전체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 개별 요소가 반드시 그러해야 하는 것은 아닌 - 연속된 유산이다(‘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번역본¹⁴⁾, 문화재청 2018)
- ② 연속형(Serial type):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으나 연속적인 유산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되어 집합적으로 등재된 유산(강동진과 남지현 2014: 118)

‘연속된’이나 ‘연속적인’이란 표현만 놓고 보면 시간적 연속성이나 물리적 연속

13) 박현주(2016: 229-230)는 이러한 구분의 부재로 인해 개별 유산을 언급하면서 ‘heritage’를 가산명사화 해 사용하는 오용 사례를 지적하며 어법상으로 보다 적절한 표현을 제안한다.

14)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책자(e-book)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행정정보 > 문화재도서 > 간행물 메뉴).

성이 먼저 떠오른다. ‘연속선상에서 생각해 볼 때’와 같이 관련성이라는 의미가 우선적으로 생각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②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serial property’는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오히려 물리적 비연결성을 지니며 해당 유산을 구성하는 요소 간의 시간적 선후 관계 또한 고려 대상이 아니다(다음 장 참조). ‘연속유산’이라는 용어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연속’이라는 표현을 ‘생산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분야 전문가가 작성한 혹은 번역한 글에서조차 SL 개념을 부정확하게 전달할 소지가 발생한다.

비전문가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다. 일례로 번역대학원 학생들이 과제로 제출한 연속유산 관련 세계유산등재신청서 국문 번역본 중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만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¹⁵⁾

그룹1

- ① ...가 국경을 초월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연속 지정됨에 따라
- ② 세계 3대 지역 7개국에 분포되어 있는 초국적이고 연속적인 선정 작품
으로...
- ③ ...은 전 세계 3개 지역, 7개국에 분포된 초국적 연속등재 유산으로,

15) ST는 ‘르코르뷔지에의 건축 작품, 모더니즘 운동에 관한 탁월한 기여(The Architectural Work of Le Corbusier, an Outstanding Contribution to the Modern Movement)’ 등재신청서 중 ‘V(e) / Management Plan’의 첫 번째 문단으로 아래와 같다(<https://whc.unesco.org/en/list/1321/documents/>).

The transnational, serial nomination, The Architectural Work of Le Corbusier, a Major Contribution to the Modern Movement, with component parts in 7 countries, in 3 regions of the World, challenges all partners in order to implement and ensure an adequate common management system, coordinating the separate components as well as all further issues of the nominated World Heritage property on the appropriate level, namely the effective protection of its component parts, i. e.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the property.

그룹1은 국내의 한 통번역대학원 과정생, 그룹2는 일반대학원 영문학과 소속의 번역학 전공 대학원생 과제물이다. 교육적 관점에서 그룹별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번역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하기는 하나 이는 향후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고 별도의 분석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본고에서는 ‘serial’이 ‘연속’이라고 번역되며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룹2

- ① ...국경을 초월해 연속적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 ② ...초국가적 연속 지명을 받은
- ③ ...초국적이며 연속적으로 지명된 유산
- ④ ...국경을 초월해 연속적으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연속 지정’, ‘연속적인 선정’, ‘연속등재’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나 모두 ‘연속적으로’로 바꿀 수 있으며,¹⁶⁾ 이 경우 동사가 후행하며 시간적 속성이 더 강하게 드러난다. ‘serial property’는 각 구성 요소를 한데 묶어 함께 등재하는 유산이므로 ‘연속적으로 등재/지정/선정했다’라는 표현은 개념적 측면에서 볼 때 틀린 것이다. ‘연속유산’이 이미 고착화된 용어이기 때문에 ST의 ‘serial nomination’을 번역하며 ‘serial’은 ‘연속~’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판단한 결과 상기와 같은 의도치 않은 ‘오역’이 발생했다고 부분적으로나마 유추해 볼 수 있다. 참고로 ‘nomination’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 신청을 한 것인데¹⁷⁾ 등재 절차를 잘 몰라 이미 등재 혹은 지정된 것으로 오역하거나, 일반적으로 ‘아카데미상 후보 지명을 받았다’와 같은 맥락에서 ‘nominate’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아 ‘지명 받다’라고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5. ‘serial property’의 TL 용어 제안 - 전문용어학적 접근

본 장에서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변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해당 개념에 명칭을 부여하는 전문용어학적 접근법을 접목해 TL 용어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serial property’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유네스코 문서를 중심으로 해당 개념이 언급된 맥락을 살핀 후, 다양한 TL 용어 후보를 앞서 제시한 신조어 생성 원칙에 준해 비교 고찰하도록 한다.

16) ‘연속(적)으로 지정(하다)’, ‘연속적(으로) 선정(하다)’, ‘연속적으로 등재(하다)’ 등
 17) 등재 후보에 오른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특정인 내지 특정 기관이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유산 소재국이 단독으로 혹은 다른 국가와 함께 등재신청서(nomination file)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으로 등재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등재 후보에 올랐다’는 표현은 적확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5.1 개념의 등장 배경 및 용어의 변천

전문용어학적 접근의 첫 단계로 ‘serial property’ 개념의 심층적 이해를 위해서는 이 용어가 등장한 배경 및 지금의 기표를 갖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 봐야 한다. 먼저 세계유산과 관련한 주요 개념이 등장하는 세계유산협약 본문에서는 ‘serial property’와 관련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2017년판, 이하 ‘운영지침’) 3장 ‘세계유산목록 등재 절차’ 부분에 관련 내용이 보인다(137조부터 139조까지). 그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serial property’는 “연관성을 명료하게 정의할 수 있는 두 개 이상의 구성요소가 포함된 유산”으로 그 구성요소가 모두 한 국가 내에 존재할 수도 있으며(serial national property) 여러 국가에 소재할 수도 있다(serial transnational property). 여기서 137조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37. 연속유산은 명확하게 정의된 연관성을 지니는 두 개 이상의 구성요소를 포함하며,
- a) 그 각각의 구성요소는...문화적, 사회적 혹은 기능적 연관성을 반영해야 하며
 - b) 각 요소는 전체적으로...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기여해야 하며
 - c) 각 요소의 과도한 분화를 방지하기 위해 등재 신청 절차...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A는 B이다”라는 일반적 정의 구문이 아니고 ‘serial property’ 개념의 특성을 나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개념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개념 혹은 관련 용어가 언제부터 운영지침에 등장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유산 개념의 변화에 따라 운영지침 또한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비정기적으로 개정되기 때문이다.

세계유산센터(UNESCO World Heritage Centre)는 운영지침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이전 버전 및 배경 문건 정보를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https://whc.unesco.org/en/guidelines/>). 이들 문건에 따르면 ‘serial property’라는 용어는 2005년판에서 처음 등장하지만 해당 개념과 관련된 최초 언급은 1997년판(문서번호 WHC-97/2)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등재 신청 지침 부분(B. Indications to State Parties concerning nominations to

the List) 중 19조 및 20조가 관련 조항이다. 지리적으로 다른 위치에 소재해 있지만 19조에 적시된 세 범주에 준한 관련성으로 인해 단일 신청이 가능한 ‘일련의 문화 내지 자연유산(a series of cultural or natural properties)’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serial property’라는 용어의 ‘serial’이 ‘a series of’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후 1999년판과 2002년판에서는 1997년판의 문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영지침 2005년판에서 ‘serial property’에 대해 처음으로 3개 조항(137조~139조)에 걸쳐 설명이 이어진다. 해당 용어가 운영지침에 등장하게 된 배경은 운영지침 3차 초안에 관한 2003년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 회의록(WHC-03/6 EXT.COM/INF.5B, Item 5 of the Provisional Agenda: Revision of the Operational Guidelines)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 회의록에 별첨(Annex 6) 형식으로 첨부된 3차 초안을 보면 ‘IV. 기타 형태의 등재 신청(Other Types of Nominations)’ 부분에, 비록 ‘serial property’라는 용어는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serial nominations’라는 관련 개념이 등장한다. 2008년판은 ‘serial property’라는 용어가 공식 등장한 2005년판과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2017년판)와 같은 문구로 변경된 것은 2011년판으로 각 구성 요소가 명확한 연계성을 지녀야 한다는 요건(“clearly defined links”)을 전진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문구의 변화가 발생한 배경은 2009년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록(WHC-09/33.COM/10A, Item 10A Serial transnational nominations)과 2010년 회의록(WHC-10/34.COM/9B, Item 9B of the Provisional Agenda: Report on serial nominations and properties)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9년 회의에서는 2008년 11월 독일 빌름(Vilm)에서 개최된 ‘natural serial properties’에 관한 워크숍(2008 워크숍)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동 워크숍에서는 표준화된 용어를 채택하고 이를 일관되게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대표적 예로 ‘serial property’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a serial property is made up of two or more component parts” while normal (non-serial properties) should be termed as “single properties” to distinguish them clearly. Therefore, a serial property may be defined as a

“property where two or more component parts are required to express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출처: WHC-09/33.COM/10A, p. 1)

[‘serial property’는 여러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명확한 구분을 위해 일반 유산(non-serial properties)은 ‘단일유산(single properties)’이라는 용어로 지칭해야 한다. 따라서 ‘serial property’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여러 구성 요소가 필요한 유산”이라 규정할 수 있다.]

이어 2쪽을 보면 ‘cluster’나 ‘network’이라는 표현은 여러 구성 요소를 묶어(grouped) 등재 신청하는 특정 경우와 관련해 ‘a cluster of component parts’나 ‘a network of component parts’처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논의에 기반하면 ‘serial’의 반의어는 ‘single’, 유의어는 ‘group/cluster/network’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2010년 위원회 34차 회의(5월)에서는 ‘serial property’와 관련한 문구 수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당시 문구(2005, 2008년판)대로라면 각 구성 요소 간의 기능적 연계성을 정의하거나 각 요소가 해당 유산의 전체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구성 요소를 단순히 특정 유형으로 분류하는 데 그칠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2011년판에서 “clearly defined links”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3개월 앞서 2010년 2월 스위스에서 개최된 전문가회의(International Expert Meeting on World Heritage and Serial Properties and Nominations) 문건을 보면 2008년 및 2009년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알 수 있는데 “clearly defined links”의 의미를 보다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 2009 워크숍에서는 전문적 차원의 등재 신청 근거 외에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식적’ 수준에서 그 일관된 연계성을 제시함으로써 ‘serial property’의 각 구성요소가 마치 한 책을 구성하는 여러 장(chapter)인 것처럼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동 워크숍은 또한 전년도 워크숍에서 ‘serial property’에 대해 내려진 정의, 즉 “OUV를 표현하기 위해 여러 구성요소가 필요한 유산”이라는 정의를 재확인하고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가? 그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Swiss Federal Office of Culture 2010: 30-31).

5.2 정의의 전문용어학적 풀이 - 변별적 특성 도출

‘serial property’의 TL 명칭 선정을 위해서는 해당 개념의 변별적 특성을 먼저 도출할 필요가 있다. ISO 704:2009는 개념의 특성(characteristics)에 기반해 정의를 구성하고 적정 용어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전문용어정보센터 또한 용어는 지칭하고자 하는 개념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특히 관련 개념과 해당 개념을 구별하는 데 필요한 것만 포함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다(Felber 1984: 180-181). 이는 반대로 용어 혹은 정의에서 해당 개념의 변별적 특성을 도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 절에서 살펴본 운영지침 137~139조 ‘serial property’ 정의 조항에 근거하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도출해 볼 수 있다.

- ① 연관성을 지닌 두 개 이상의 구성 요소를 포함(복수 요소 연관성)
- ② 세계유산으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보유(유산적 가치성)

②의 경우 ‘serial property’의 반대 개념에 해당하는 단일유산(single property)에도 적용되는 공통(common) 특성이며 ①이 ‘변별적(delimiting)’ 특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ISO 704:2009는 또한 특성 고찰에서 더 나아가 개념 체계 안에서 관련 개념군과 해당 특성의 연관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이를 통해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계층관계(hierarchical relationship)는 유종관계와 전체-부분관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유종관계를 형성하는 종개념(specific concept)과 유개념(generic concept) 간에는 정보의 전이가 발생한다. 즉, 유개념이 갖고 있는 정보가 종개념에 ‘상속(inherit)’된다. ‘serial property’는 ‘세계유산’의 종개념으로 ‘property’는 세계유산이라는 정보를 상속한다고 볼 수 있다. ‘(세계)유산’이라는 상위어 요소에 ‘serial’이라는 종차 개념을 덧붙여, 즉 종차 개념이 총칭(상위) 개념을 수식하는 형식으로, 특수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5.3 TL 명칭 부여

TL 명칭 부여를 위해서는 크림파스(Krimpas 2017)의 방식을 원용하기로 한

다. 크립파스는 그 기원이 주로 영어인 금융(finance) 부문 개념을 소수언어인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TL 용어를 생성함에 있어 ISO 704:2009 원칙을 적용 가능한지, 그리고 그 효과성은 어떤지를 분석했다. 먼저 온오프라인 자료를 통해 TL 대역어 현황 및 용어 정의를 조사하고 정의에 기반해 각 개념의 변별적 특성을 제시했다. 이들 대역어 중 가장 적절한, 혹은 적절한 TL이 없을 경우엔 새로운 TL을 제시한 후 이를 다른 대역어와 ISO 704 원칙에 준해 비교 분석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연속유산’(한국, 일본), ‘계열유산’(중국)이라는 TL 용어에 더해 지금까지 논의한 ‘serial property’ 개념의 특성 및 정의에 기반해 생각해 볼 수 있는 TL 명칭 후보를 제안해 보면 아래와 같다.¹⁸⁾

〈표 4〉 ‘serial property’의 TL 명칭 후보

TL 용어 후보	투명성	일관성	무중의성	수용성	생산성	규범성	총점
연속유산		○		○	△	○	3.5
동질유산	△	○	○	○	△	○	5
집단유산	△	○	△	○	○	○	5
집합유산	○	○	○	○	○	○	6
합동유산	△	○	△	○	△	○	4.5
공동유산	△	○	△	○	△	○	4.5
연관유산	△	○	○	○	△	○	5
계열유산	△	○	○	○	△	○	5

주) ○는 1점, △는 0.5점, 는 0점을 부여하여 총점을 계산하였다.

후보 용어 모두 ‘유산’을 후행 요소로 두고 있어 ‘세계유산’의 하위 개념으로 개념 체계적 일관성을 지닌다고 보았고, 기능어 없이 ‘명사+명사’ 형식으로 간략한 구조를 하고 있어 언어적 경제성을 포함한 수용성을 지니며, 음역이 아닌 우리말(한자어 포함)로 번역하고 있어 규범성 요건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았다.

투명성 측면에서 ‘연속유산’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는 용어 자체에서 어느 정도 개념을 유추해 낼 가능성이 존재한다. ‘△’로 표시된 후보는 아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

18) 이외에도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다. 본고의 목적은 가장 적합한 TL 용어를 제안하는 데 있지 않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보여주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후보군을 10개 이하로 한정하였다.

- ‘serial property’의 변별적 특성인 복수 구성 요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 ‘동질유산’은 다른 유산과 동질적 특성을 지녀 그룹화 가능하지만 해당 유산 자체가 여러 요소로 구성되었다는 의미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계열유산’ 또한 마찬가지다.
- 복수 개념이 구체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경우. 세계유산은 유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므로 ‘serial property’가 지칭하는 대상은 당연히 구체물이다. 그런데 ‘집단유산’이나 ‘공동유산’의 경우 복수 개념이 해당 유산의 창조자 혹은 생산자에게 적용되는 느낌이 강하다. 이들은 또한 특정 집단의 유산이라거나 공동의 유산 등으로도 읽힐 수 있어 명확성, 즉 무중의성 요건도 전적으로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세계유산은 모두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공동유산’은 ‘serial property’의 상대적 개념인 단일유산까지 아우를 가능성도 존재한다.

생산성은 선행 요소를 중심으로 파생어 생성이 가능한지 여부와 파생어가 다른 의미로 읽힐 여지는 없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앞서 ‘연속유산’이라는 용어에서 ‘연속적으로 신청/등재하다’ 같은 표현이 비롯되어 오역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신청하다’는 표현과 같이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후보 용어 모두 명사가 선행 요소이므로 한국어 특성상 조사와 결합이 가능해 기본적으로 파생어 생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청하다’라는 동사와 결합시켜 ‘동질하게 신청한 유산’이나 ‘계열로 신청한 유산’이라는 표현을 만들어 보면 이상한 조어가 되거나 다른 의미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후자의 경우 ‘A계열’ 등 특정 계열(수직성)로 신청했다는 의미가 내포되며 원래 SL 용어의 ‘serial’이 의미하는 동일 수준에 있는 일련의 구성 요소(수평성)와 다른 이미지가 형성된다.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결과 ‘집합유산’이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본고에서 제시한 안 중에서는 가장 적합한 후보 용어라 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집합(集合)’을 “특정 조건에 맞는 원소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하는데 ‘집합유산’은 이 수학적 개념을 차용해 ‘의미론적 신조어’¹⁹⁾로 만들어진 경우라고 보면 된다. “연관성을 명료하게 정의할 수 있는 두 개 이상의 구성요소가 포함된 유산”이라는 ‘serial property’의 정의와

비교해 보면 ‘집합유산’은 명확한 연관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구성요소의 모임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적 투명성 외에도 ‘집합적으로 등재/신청하다’라는 표현은 여러 요소를 묶어 같이 등재 혹은 신청하다라는 뜻으로 생산성 요건 또한 충족한다.²⁰⁾

6. 나가며

본고는 외래 용어/개념의 번역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적합한 TL 신조어(명칭)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용어학적 접근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번역 과정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보여주하고자 했다.

약술해 보자면, 전문용어의 번역은 SL 용어가 담고 있는 개념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단계와 해당 개념을 가장 잘 표상하는 TL 명칭을 선정하는 단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전문용어학적 접근법을 적용하자면 1단계에서는 해당 개념이 지니는 일련의 특성을 파악한다. 관련 개념군과 이들 특성의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공통 특성 및 변별적 특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이들 특성이 반영된 TL 용어 후보군을 대상으로 ISO 704 등을 고려한 신조어 생성 원칙에 준해 최적의 TL 명칭을 선정한다.

이러한 접근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세계유산 관련 개념 중 국내에서는 ‘연속유산’이라는 용어로 번역되어 통용되고 있는 ‘serial property’를 사례로 들어 논의를 진행했다. TL 용어의 ‘연속’이라는 표현 때문에 해당 개념이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을 제시한 후, 가장 적합한 TL 명칭을 찾기 위해 우선 SL 용어의 생성 및 변천에 관한 유네스코 문서를 검토함으로써

-
- 19) Pavel과 Nolet(2001: 20-21)은 신조어를 의미론적 신조어와 형태론적 신조어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한다. 후자는 파생, 조합, 합성, 혼성, 약성어화, 차용 등의 다양한 과정을 거쳐 새로운 단어 형태가 만들어진 경우다. 의미론적 신조어는 용어의 형태 변화 없이 의미 확장, 은유, 문법 범주의 전환, 다른 주제 분야에서의 차용에 의해만 들어진다.
- 20) 각각의 등재신청서를 살펴보면 ‘a serial property’라는 표현보다는 ‘serial property로 등재를 신청한다’는 의미에서 ‘a serial nomination’이라는 어구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등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다. 이후 이 개념의 특성을 반영한 일련의 TL 명칭 후보를 대상으로 본고에서 제안한 여섯 가지 신조어 생성 원칙(투명성, 일관성, 무중의성, 수용성, 생산성, 규범성)을 적용해 수학 분야의 ‘집합’ 개념을 차용한 ‘집합유산’이라는 대안을 제안해 보았다. 전술한 바 있듯 본고는 이미 고착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기존 기표를 무리하게 대체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전문용어 번역 시 본고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고려해 보다 정확한 번역어 생성에 번역사가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본고의 의의는 번역학과 전문용어학을 접목한 다학제적 접근법을 구체적 예시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간 특정 전문 분야에서의 용어 번역에 대한 논의는 종종 볼 수 있었으나 번역학 자체적으로는 전문용어의 실질적 번역과 관련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재 분야에서도 세계유산 관련 개념 중 극히 일부만을 고찰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본고가 문화재 분야 전반적으로 외래 용어를 전문용어학 및 번역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길 바라본다.

본고는 또한 전문번역사가 용어 번역의 중요성 및 용어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번역교육기관에서는 번역사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학 교과목을 도입하는 한편으로, 용어의 습득에 초점을 맞추고 기존 용어를 익히던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용어학 이론을 바탕으로 신조어를 생성하는 등 실질적으로 전문용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번역사의 전문용어능력 제고를 위한 해외 선진 사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경환 (2010) 『한국의 세계유산 보존관리 방안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목원대학교.
- 강동진, 남지현 (2014) 「일본 큐슈-야마구치 일원 근대화 산업유산군의 세계문

- 화유산 등재에 대한 비판적 고찰, 『國土計劃』 49(2): 115-129.
- 김성원, 김정우 (2011) 「전문 용어 번역의 유형과 방법론: 의학 전문 용어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2): 33-52.
- 김정우 (2000) 「언어학 술어 번역의 체계화 문제」, 『번역학연구』 1(2): 5-25.
- 김정우 (2003) 「자연과학 텍스트의 번역 방법론 시론」, 『번역학연구』 4(1): 27-49.
- 문화재청 (2018)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2017년 판 번역본).
- 박현주 (2016) 『문화재 분야 한영번역용 온라인 전문용어사전 구축 방안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 방교영 (2000) 「러시아어 정보통신 전문용어 유형분석」, 『통번역학연구』 4: 87-102.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백두대간 국제보호지역 등재추진에 관한 연구 (백두대간보호지역 세계유산 타당성 조사 연구)」. 산림청 연구보고서.
- 이현주 (2015) 「전문용어학의 이론적 토대를 위한 개념 연구」, 『한국사전학』 26: 40-67.
- 이현주 외 (2007) 「외래 전문용어 번역 및 조어법 연구」.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 임현경 (2015) 「국내 공공분야 전문용어 표준화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조사 및 제언」, 『통역과 번역』 17(2): 27-49.
- 정연진 (2013) 「용어학을 위한 ISO 전문용어 표준-보고논문」, 『통번역학연구』 17(4): 139-155.
- 최기선 (2007) 「전문 용어의 표준화 - 남북 표준에서 시맨틱 웹까지-」, 『새국어생활』 17(1): 11-24.
- Cabre, M. Teresa (2010) 'Terminology and Translation', in Yves Gambier and Luc van Doorslaer (eds)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Vol. 1*,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356-365.
- Felber, Helmut (1984) *Terminology Manual*, Infoterm & UNESCO.
- Francioni, Francesco (2007) 'A Dynamic Evolution of Concept and Scope: from cultural property to cultural heritage', in Abdulqawi A. Yusuf (ed) *Standard-setting in UNESCO Vol. 1: Normative Action in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UNESCO, 221-236.

-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2000) ‘ISO 704: 2000. Terminology work - Principles and methods’.
-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2009) ‘ISO 704: 2009. Terminology work - Principles and methods’.
- Krimpas, Panagiotis G. (2017) ‘ISO 704:2009 and equivalents of English financial terms in lesser-used languages: the case of Greek’, *Perspectives* 25(3): 397-416.
- Pavel, Silvia & Nolet, Diane (2001) *Handbook of Terminology*, Terminology and Standardization Translation Bureau,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
- Swiss Federal Office of Culture (2010) *UNESCO World Heritage: Serial Properties and Nominations*.
- UNESCO (1972)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https://whc.unesco.org/en/conventiontext/>).
- UNESCO (2017) ‘The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https://whc.unesco.org/en/guidelines/>).

국제전문용어정보센터(Infoterm)	http://www.infoterm.info/
국제표준화기구(ISO)	https://www.iso.org/
문화재청	http://www.cha.go.kr
유네스코한국위원회	https://www.unesco.or.kr/
캐나다 번역국	https://www.tpsgc-pwgsc.gc.ca/bt-tb/index-eng.html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Abstract]

**The Use of Term-creation Principles as a Translation Strategy
for Newly Introduced Concept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World Heritage term “serial properties”**

Park, Hyun Ju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seeks to explore the applicability of term-creation principles to the translation of new foreign concepts,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World Heritage (WH). Few studies have been published on the topic at least from the perspectives of Translation Studies in Korea.

First, an examination is conducted on major principles for term creation – ISO’s term formation principles, Infoterm’s term requirements, and Canadian Translation Bureau’s factors for the acceptance of neologism – in order to present an integrated set of principles that are applicable to translating newly introduced terms.

Then, the revised principles are used to determine a more adequate Korean designation for the imported WH concept “serial properties,” as the current TL term *yeonsok yusan* (lit. continuous property/heritage) is neither “transparent” nor “appropriate” according to ISO 704. A deep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is a prerequisite to choosing the best from among TL term candidates. Hence UNESCO documents are examined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and identify its essential (“delimiting” in particular) characteristics before evaluating the term candidates according to the proposed principles.

To sum up, the paper suggests that a terminological approach can provide an effective solution to translating new concepts.

▶ Key Words: UNESCO World Heritage, serial properties, terminology translation, ISO 704

▶ 주제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연속유산, 전문용어 번역, ISO 704

박현주

부산대학교 글로벌 영상번역 창의인재 교육-연구 혁신 사업단 계약교수

beakey72@hanmail.net

관심분야: 문화재 번역, 번역 보조 도구, 전문용어사전, 코퍼스번역학

논문투고일: 2018년 8월 4일

심사완료일: 2018년 8월 31일

게재확정일: 2018년 9월 5일